

■ Keyword ■

Kritik, Reformation, Reform, Dialektik, Reformierte

5 한국에서의 칼뱅연구사¹⁾

박경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사

1. 시작하는 말

2008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펴낸 「한국의 종교현황」에 소개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1월 1일 현재 약 4,700만 명의 한국인 중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는 2,497만 명(53.1%)에 달했다. 이 중 불교 인구가 1,072만 명(22.8%)으로 가장 많았고, 개신교 861만 명(18.3%), 천주교 514만 명(10.9%) 순으로 나타났다.²⁾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한 전체 기독교 신자들의 통계를 보면 1,375만 명(29.2%)으로 한국의 종교 중에서 단연 최대 규모이다. 더욱이 불교 신자들 가운데는 실제로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리지 않는 명목적

- 1) 본고는 한국기독교학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Vol. 75에 영어로 실은 것을 한글로 번역하고 손질한 것임을 밝혀 둔다. 또한 본고에서는 외국어표기법에 따라 Calvin을 칼뱅으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책이나 논문, 기관의 고유명칭, 그리고 직접 인용에서 '칼빈'이라고 표기한 것들은 '칼뱅'으로 바꾸지 않고 원래 표기를 따랐다.
- 2) 「한국의 종교현황」(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신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독교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개신교회가 불과 125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고, 지금은 주도적인 한국의 종교로 자리를 잡았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의 개신교인들 가운데는 장로교인들의 수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장로교의 교세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장로교회라는 간판을 달아야만 사람이 모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다. 왜 유독 장로교회가 한국에 뿌리를 깊이 내렸는가 하는 문제는 문화인류학적, 정치사회적, 종교심리학적 관점의 분석들이 필요할 것이니 여기에서는 차치하도록 하겠다. 다만 장로교의 교세가 강한 만큼 한국에서는 장로교회의 창설자 중 한 사람인 칼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특별하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한국에서 칼뱅이 어떻게 수용되고 연구되어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한국에서의 칼뱅연구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후 칼뱅연구의 진척을 위한 몇 가지 실제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여전히 칼뱅의 유산으로부터 배울 바가 있으며, 16세기의 칼뱅 사상이 21세기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서도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2. 한국에서의 칼뱅연구사

1) 1945년 이전

19세기 말 한국에 들어온 장로교 선교사들은 미국 북장로회,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교 네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한국에 들어온 장로회 선교사들은 연합하여 장로교공의회(The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를 결성하였다.³⁾ 1900년 장로교공의회의 평양위원회

3) “1884년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온 미국 북장로회는 1889년 입국한 호주 장로회와 더불어 장로교공의회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이 협의체는 호주 장로회의 선교사 데이비스(J. H. Davies)가 죽자 사실상 해체되었다가, 1892년 미국 남장로회의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하

는 교회를 위한 일꾼 양성을 위해 신학교육을 시작하도록 해 달라는 청원을 하여 허락을 받았다. 이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마포삼열(Samuel A. Moffett)이 1901년 김종섭 장로와 방기창 장로 두 사람과 함께 그의 사랑방에서 신학반을 운영한 것이 장로회신학교의 시초가 되었다. 1903년 장로회공의회는 5년 과정의 신학반과 3년 과정의 조사(helper) 양성반을 두기로 하고 공식적으로 신학교육을 시작하였다. 마포삼열 선교사가 2년 임기의 교장으로 공식 임명되었고, 당시 교수는 마포삼열, 배위량(William M. Baird), 소안론(William I. Swallen), 이길함(Graham Lee), 한위렴(William B. Hunt), 편하설(Charles F. Bernheisel), 원두우(H. G. Underwood), 전위렴(W. M. Junkin), 왕길지(G. Engel) 등이었다.⁴⁾ 1906년에는 수학하는 학생이 50명에 달하였으며, 마침내 1907년 6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신학교 최초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방기창, 양전백, 길선주, 이기풍, 송린서, 서경조, 한석진, 이들 7명은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독노회에서 최초의 한국인 목사로 장립되었다. 이때부터 신학교는 평양위원회가 아닌 장로교공의회가 직영하는 체계로 운영되었다.⁵⁾

칼뱅이 한국에 최초로 소개된 것은 평양의 장로회신학교에서였다.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초의 칼뱅에 관한 강의가 1909년 장로회신학교에서 있었다. 1909년은 칼뱅이 탄생한 지 400주년이 되는 해였는데, 이를 기념하여 마포삼열 교장이 “칼뱅에 관하여 : 칼뱅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여”(On John Calvin : in celebration of the 40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John Calvin)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 것이다.⁶⁾ 이후 평양의 장로회신학교에서 교회

자 1893년 남·북장로회 선교공의회로 재조직되었다. 이 공의회는 이후 호주 장로회와 캐나다 장로회까지 가입하여 명실상부한 장로교선교회의 연합공의회가 되었다. 공의회는 처음에는 단지 권고적 권한만을 지녔고 개 선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01년 무렵부터 점차로 정치적인 권한까지 보유하게 되어, 1907년 장로교 독노회가 설립되기까지 한국장로교회의 실제적인 정치기구 역할을 담당했다.” 박경수, “초기 한국 개신교 부흥운동과 교회연합운동,” 「장신논단」 26(2006), p. 133.

4) 1916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Pyongyang, 1916), pp. 9-11.

5) 1916 Catalogue, p. 11.

6)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to the Annual

사를 가르쳤던 왕길지(G. Engel)는 1915년 두 권으로 된 교회사 교재를 편찬하였는데, 1권은 고대교회사에 해당하는 「고교회변증론」(古教會辨證論)이고 2권은 종교개혁 후기사라 할 수 있는 「갱정후사기」(更正後史記)였다. 왕길지는 종교개혁(Reformation)을 ‘다시 바르게 하다’는 의미로 ‘갱정’(更正)이라고 번역하였고, 개신교를 ‘갱정교’(更正教)라고 불렀다. 그리고 칼뱅은 ‘갈빈’(葛彬)이라고 음역하였다.⁷⁾

장로회신학교의 1916년 요람에 나타난 교과목들을 살펴보면 교회사를 매우 중시하여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1916년의 교과과정을 보면 교회사를 ‘교회사기’(上古), ‘교회사기’(中世), ‘교회사기’(更正前-更正時), ‘교회사기’(更正後)의 네 과목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쉐필드(Sheffield)의 「만국통감」(萬國通鑑, *Universal History*)이라는 일반 역사책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또한 이때부터 이미 ‘갈빈도리’(葛彬道理, Life and Thought of Calvin), ‘뇌혁사보교기’(腦革事保敎紀, Life of Knox), ‘로득개교기략’(路得改敎紀畧, Life of Luther)과 같은 강의들이 별도의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다.⁸⁾ 1923년의 요람을 보면 교회사를 사도시대(Apostolic), 초대(Nicene), 중세(Medieval), 갱정시대(Reformation), 갱정후시대(Post-Reformation), 근세(Modern)의 여섯 과목으로 더욱 세분하여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장로교회의 역사’(12시간), ‘중국 장로교회의 현법과 역사’(4시간), ‘일본 장로회의 현법과 역사’(4시간)까지도 가르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⁹⁾

한국에서 최초로 칼뱅에 대해 대중에게 소개한 글은 1916년 11월 29일부터 1917년 6월 20일까지 7개월에 걸쳐 「기독신보」(基督申報, *The Christian Messenger*)¹⁰⁾에 연재되었던 시온산인(禪藍山人)의 “갈빈약한전”(葛賓約翰傳), 즉

Meeting, 1909, p. 38.

7) 이상규, “한국에서의 칼빈 연구,” 「칼빈과 한국교회」(Seoul : The Word of Life Press, 2009), p. 255.

8) 「1916년 조선야소교장로회 신학교요람」(평양, 1916).

9) 1923 *Catalogue of th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Korea*(Pyongyang, 1916), pp. 27-31.

10) 「기독신보」는 1915년 12월 7일 창간되어 1937년 8월 1일 경영 부진으로 이후 2개월 동안 휴간 계를 제출한 후 기일 내에 속간하지 못하자, 같은 해 12월 1일 일제 당국에서 허가

“요한 칼뱅의 일대기”였다. 저자는 연재를 시작하면서 이 연재물이 일본의 송영문웅(松永文雄) 목사가 칼뱅의 「기독교강요」, 린제이(Thomas M. Lindsay)의 「종교개혁사」, 샤프(Philip Schaff)의 「교회사」 등을 참고하여 1909년에 저술한 것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¹¹⁾ 7개월에 걸쳐 연재된 이 칼뱅 연대기는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칼뱅의 유년기, 교육, 제네바 개혁운동, 스트拉斯부르 시기, 멜란히톤이나 사돌레토의 관계, 결혼, 임종, 성격, 사명, 역사상의 위치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시온산인의 칼뱅 연대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자세하게 칼뱅을 소개했다는 점에서, 또한 일반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가진 신문에 연재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라고 할 것이다.

1923년 오천경은 「교회역사인물지」(敎會歷史人物誌)라는 책에서 교회사의 여러 중요 인물 40명을 기술하였는데, 그중 31번째로 칼뱅을 소개하고 있다. 오천경은 이 글에서 칼뱅의 가정배경, 학교교육, 제네바에서의 개혁활동, 루터와의 비교 등을 다루었다.¹²⁾ 또한 1924년에는 김인영이 1916년에 창간된 감리교의 신학잡지인 「신학세계」에 “종교개혁가 요한 갈빈”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¹³⁾ 분량은 4쪽에 불과하지만 신학잡지에 소개된 최초의 논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1918년 창간된 장로교의 신학잡지인 「신학지남」보다 먼저 감리교의 「신학세계」에서 칼뱅에 대해 다루었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한국에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매우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제로 「신학세계」 제1권에 마포삼열 선교사가 쓴 평양장로회신학교 역사가 실려 있으며, 「신학세계」와 「신학지남」이 서로 광고를 싣고 필자들도 교환했을 만큼 상호소통이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본격적인 칼뱅연구가 시작된 것은 1934년 장로회신학교 잡지인 「신학지남」이 칼뱅 탄생 425주년과 한국장로교 선교 50주년을 맞아 칼뱅 특집

를 취소하므로 폐간된 신문으로 장로교와 감리교가 합동으로 발간했던 신문이다.

11) 「기독신보」 1916. 11. 29. 한국 교회사 초기에는 칼뱅의 이름을 한자에서 음역하다 보니 ‘갈빈’을 葛彬 혹은 葛賓 등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한 것들이 나타난다.

12) 오천경, 「교회역사인물지」(경성 : 活動書海, 1923).

13) 「신학세계」 9권 5호(1924. 9.), pp. 40-44.

을 다를 때였다.¹⁴⁾ 시온산인, 오천경, 김인영의 글들은 거의 일본 자료들을 번역 소개하는 정도였던 반면에, 「신학지남」에 실린 글들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 학자들의 칼뱅 이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신학지남」은 권두언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칼빈은 우리 장로교인의 피에 철분을 품겨 주는 사람이며 그의 손에는 전 장로교인을 아니 전 그리스도교인을 편달하는 채찍이 쥐어 있다. 차츰 거룩한 법도가 해이해지는 우리 교계에 있어서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삶이 얼마나 엄격한 채찍이 될 것은 독자 각자의 자성에 맡기거니와 우리는 다 함께 그의 탄생을 축함과 동시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양의 말씀을 드려야 할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본 호를 칼빈 기념 특집호로 여러분 앞에 드리는 연유이다.”¹⁵⁾ 이때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실린 글들은 남궁혁 “칼빈신학과 현대 생활”, 송창근 “요한 칼빈의 일생”, 박형룡 “칼빈의 예정론”, 채필근 “칼빈의 교회관과 교회정책”, 이눌서 “칼빈신학과 그 감화”, 송창근 “예정신학이라기보다 예정신앙”, 라부열 “성서주석가로 본 칼빈”, 꽈안련 “강단의 칼빈”이었다. 논문들과 더불어 칼뱅의 설교 “핍박”(Enduring Persecution for Christ)이 김재준의 번역으로 함께 실렸다. 70쪽 분량의 칼뱅 특집 논문집은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칼뱅연구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후에 나온 칼뱅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35년 김태복이 「칼빈의 생애와 그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200쪽에 달하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칼뱅에 대한 이전의 단편적인 소개에서 벗어나 칼뱅의 생애 전체를 조망하고, 칼뱅의 저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1937년에는 함일돈(F. E. Hamilton)¹⁶⁾ 선교사가 「신학지남」에 “칼빈주의”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 글을 기고하였다.¹⁷⁾ 그는 논문에서 네덜란드의 도르트 회의(Dort Synod, 1618–1619)에

서 결의한 칼뱅주의 5대 교리(TULIP)라 불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을 해결하면서 이것을 곧 칼뱅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1934년 「신학지남」의 칼뱅특집호에서도 “칼빈주의 예정론”이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던 박형룡이 1937년에는 뵈트너(L. Boettner)의 책(*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을 「칼빈주의 예정론」이란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이 책은 칼뱅주의 입장에서 예정론을 다룬 최초의 번역서이다. 번역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박형룡은 개혁주의와 칼뱅주의를 동일시하고 있다. 1938년에는 김태복도 “칼빈사상에 있어서의 예정사상의 의의”(The Meaning of Predestination)라는 논문을 3차례에 걸쳐 실으면서 예정론이 칼뱅주의의 핵심처럼 여겨지게 된다.¹⁸⁾ 그 후에도 1939년에는 남궁혁이 “칼빈의 사상”(The Thought of Calvin)을 발표하였고,¹⁹⁾ 1940년에는 박형룡이 “칼빈주의와 신칼빈주의”라는 논문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²⁰⁾ 이처럼 평양장로회신학교의 기관지였던 「신학지남」은 칼뱅사상과 칼뱅주의를 소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지만,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면서 장로회신학교가 1938년 폐교를 선언한 뒤 「신학지남」도 제22권 5호를 끝으로 1940년 10월에 속간하였다. 그 뒤 해방과 한국전쟁의 격랑 속에 있었기 때문에 14년이 지난 1954년 2월에야 제23권 1호를 발행함으로써 속간되었다. 그러나 장로교의 분열을 거치면서 1965년 이후부터는 장로회신학대학(통합)은 「교회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총신대학(합동)은 「신학지남」이라는 이름으로 잡지를 간행하고 있다.

2) 1945년에서 1979년까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 새로운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했으며, 장로회신학교도 폐교된 상태이기 때문에 칼뱅에 대한

14) 「신학지남」 16권 4호 칼빈탄생 425주년 기념특집호(1934. 7.), pp. 1–70.

15) 「신학지남」 16권 4호(1934. 7.), p. 1.

16) 함일돈은 1919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왔지만 신학노선의 차이로 인해 1935년 북장로회에서 정통장로교회로 이적하였다. 평양의 숭실전문학교와 장로회신학교에서 가르쳤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40년 강제출국을 당했다.

17) 「신학지남」 19권 4–6호(1937. 7, 9, 11).

18) 「신학지남」 20권 5호(1938. 9.) ; 20권 6호(1938년 11월) ; 21권 1호(1939. 1).

19) 「신학지남」 21권 1호(1939. 1).

20) 「신학지남」 22권 5호(1940. 9).

을 다룰 때였다.¹⁴⁾ 시온산인, 오천경, 김인영의 글들은 거의 일본 자료들을 번역 소개하는 정도였던 반면에, 「신학지남」에 실린 글들은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 학자들의 칼뱅 이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신학지남」은 권두언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칼빈은 우리 장로교인의 피에 철분을 품겨 주는 사람이며 그의 손에는 전 장로교인을 아니 전 그리스도교인을 편달하는 채찍이 쥐어 있다. 차츰 거룩한 법도가 해이해지는 우리 교계에 있어서 그의 생각, 그의 말, 그의 삶이 얼마나 엄격한 채찍이 될 것은 독자 각자의 자성에 맡기거니와 우리는 다 함께 그의 탄생을 축함과 동시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찬양의 말씀을 드려야 할 거룩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본 호를 칼빈 기념 특집호로 여러분 앞에 드리는 연유이다.”¹⁵⁾ 이때 7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실린 글들은 남궁혁 “칼빈신학과 현대 생활”, 송창근 “요한 칼빈의 일생”, 박형룡 “칼빈의 예정론”, 채필근 “칼빈의 교회관과 교회정책”, 이눌서 “칼빈신학과 그 감화”, 송창근 “예정신학이라기보다 예정신앙”, 라부열 “성서주석가로 본 칼빈”, 꽈안련 “강단의 칼빈”이었다. 논문들과 더불어 칼뱅의 설교 “핍박”(Enduring Persecution for Christ)이 김재준의 번역으로 함께 실렸다. 70쪽 분량의 칼뱅 특집 논문집은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칼뱅연구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후에 나온 칼뱅연구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35년 김태복이 「칼빈의 생애와 그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200쪽에 달하는 책을 썼다. 이 책은 칼뱅에 대한 이전의 단편적인 소개에서 벗어나 칼뱅의 생애 전체를 조망하고, 칼뱅의 저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1937년에는 함일돈(F. E. Hamilton)¹⁶⁾ 선교사가 「신학지남」에 “칼빈주의”라는 제목으로 세 차례 글을 기고하였다.¹⁷⁾ 그는 논문에서 네덜란드의 도르트 회의(Dort Synod, 1618–1619)에

서 결의한 칼뱅주의 5대 교리(TULIP)라 불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을 해설하면서 이것을 곧 칼뱅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1934년 「신학지남」의 칼뱅특집호에서도 “칼빈주의 예정론”이란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던 박형룡이 1937년에는 빌트너(L. Boettner)의 책(*The Reformed Doctrine of Predestination*)을 「칼빈주의 예정론」이란 제목으로 번역하였다. 이 책은 칼뱅주의 입장에서 예정론을 다룬 최초의 번역서이다. 번역서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박형룡은 개혁주의와 칼뱅주의를 동일시하고 있다. 1938년에는 김태복도 “칼빈사상에 있어서의 예정사상의 의의”(The Meaning of Predestination)라는 논문을 3차례에 걸쳐 실으면서 예정론이 칼뱅주의의 핵심처럼 여겨지게 된다.¹⁸⁾ 그 후에도 1939년에는 남궁혁이 “칼빈의 사상”(The Thought of Calvin)을 발표하였고,¹⁹⁾ 1940년에는 박형룡이 “칼빈주의와 신칼빈주의”라는 논문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²⁰⁾ 이처럼 평양장로회신학교의 기관지였던 「신학지남」은 칼뱅사상과 칼뱅주의를 소개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지만,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면서 장로회신학교가 1938년 폐교를 선언한 뒤 「신학지남」도 제22권 5호를 끝으로 1940년 10월에 폐간하였다. 그 뒤 해방과 한국전쟁의 격랑 속에 있었기 때문에 14년이 지난 1954년 2월에야 제23권 1호를 발행함으로써 속간되었다. 그러나 장로교의 분열을 거치면서 1965년 이후부터는 장로회신학대학(통합)은 「교회와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총신대학(합동)은 「신학지남」이라는 이름으로 잡지를 간행하고 있다.

2) 1945년에서 1979년까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후 새로운 정부 수립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수선했으며, 장로회신학교도 폐교된 상태이기 때문에 칼뱅에 대한

14) 「신학지남」 16권 4호 칼빈탄생 425주년 기념특집호(1934. 7.), pp. 1–70.

15) 「신학지남」 16권 4호(1934. 7.), p. 1.

16) 함일돈은 1919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한국에 왔지만 신학노선의 차이로 인해 1935년 북장로회에서 정통장로교회로 이적하였다. 평양의 송실전문학교와 장로회신학교에서 가르쳤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40년 강제출국을 당했다.

17) 「신학지남」 19권 4–6호(1937. 7, 9, 11).

18) 「신학지남」 20권 5호(1938. 9.) ; 20권 6호(1938년 11월) ; 21권 1호(1939. 1).

19) 「신학지남」 21권 1호(1939. 1).

20) 「신학지남」 22권 5호(1940. 9).

연구가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만주 봉천신학교에서 가르치던 박형룡과 박윤선이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세우게 된다. 그리하여 1950년대 초부터 고려신학교의 신학잡지인 「파수꾼」(把守軍, *The Watchman*)²¹⁾에 칼뱅과 칼뱅주의를 다루는 글이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폐간되었던 「신학지남」이 1954년 속간되면서 칼뱅연구가 새롭게 이어져 나갔다.

해방 후에 고려신학교의 교장이던 박윤선이 「파수꾼」에 “개혁교파의 교회론 소고”를 2회에 걸쳐 기고하면서 칼뱅과 칼뱅주의자들의 교회론을 소개함으로써 칼뱅연구가 재개되었다.²²⁾ 또 정해동 목사는 “칼빈의 약력”이라는 글을 3회에 걸쳐 실었으며,²³⁾ 김상도 목사는 루이스 벌코프(L. Berkhof)의 논문을 “현대의 종교적 혼란 중에 있어서 칼빈주의의 확고성”이라고 번역하여 실었다.²⁴⁾ 이 시기에 주목할 것은 박윤선이 12회에 걸쳐 “칼빈주의”란 글을 연재한 것이다.²⁵⁾ 박윤선은 칼뱅주의의 중요한 교리들뿐 아니라 칼뱅주의 입장에서 본 기독교인과 국가의 관계, 여교역자의 교회적 위치 등과 같은 실제적인 주제들도 다루었다. 이것은 실제로 한국인의 관점에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칼뱅주의를 소개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937년에 함일돈이 칼뱅주의를 소개한 적이 있으나 그것은 외국 선교사의 입장이었고, 박형룡이 소개한 「칼빈주의 예정론」도 번역서였기 때문에, 박윤선의 “칼빈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박윤선은 이전에도 중요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는데, 예를 들면 “칼빈주의의 기본 원리와 칼 바르트의 기본 원리”에서 박윤선은 계시, 설교, 기도와 같은 주제들에서 칼뱅과 바르트의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칼뱅주의 관점에서 바르트의 신학을 비판하였다.²⁶⁾ 또한 그는 4회에 걸쳐 실은 “칼빈주의의 최대 표현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위기 신학”이란 글에서도 바르트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²⁷⁾

이즈음 칼뱅과 칼뱅주의 사상에 대한 번역서도 등장하였는데, 1950년 김재준은 파커(T. H. L. Parker)의 책을 「칼빈의 모습」(*Portrait of John Calvin*)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고,²⁸⁾ 1956년 이병섭은 데이킨(A. Dakin)의 책을 「칼빈주의」(*Calvinism*)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으며,²⁹⁾ 박윤선은 헨리 미터(H. Meeter)의 책을 「칼빈주의」(*The Basic Ideas of Calvinism*)로 번역 출간하였다.³⁰⁾ 이런 번역서들은 당시 칼뱅주의 사상 연구의 이정표의 역할을 하였다. 1950년대에 주목할 만한 것은 신약학자인 전경연이 칼뱅에 관한 단행본을 출판했다는 사실이다. 전경연은 「십자군」에 8차례에 걸쳐 칼뱅과 관련된 논문을 실었고,³¹⁾ 이것들을 묶어 1959년에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이란 책을 출판하였다.³²⁾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에서의 칼뱅연구는 보다 활기를 띠게 된다. 먼저 칼뱅의 주저인 「기독교강요」가 이 시기에 소개되기 시작했다. 1960년에 이종성은 「기독교강요」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커(Hugh T. Kerr)의 책(*A Compend of the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을 번역하여 소개하였다.³³⁾ 이것은 당시로서는 칼뱅의 주저인 「기독교강요」를 간접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1964년에는 「기독교강요」 1권이 신복윤과 한철하에 의해 번역 출간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이 완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7년 김문제에 의해 「기독교강요」 전체가 완역되어 세종문화사를 통해 출판되었다.³⁴⁾ 번역의 정확성은 차치하고서라도

27) 「파수꾼」 27, 28, 29, 30호(1953).

28) T. H. L. Parker, 김재준 역, 「칼빈의 모습」(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50). 이 책은 1973년에 재판되었다.

29) A. Dakin, 이병섭 역, 「칼빈주의」(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56).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기독교강요」를 요약하고 있고, 2부는 칼뱅주의 역사를, 3부는 칼뱅주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30) H. Meeter, 박윤선·김진홍 역, 「칼빈주의」(서울 :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59).

31) 「십자군」 12, 15, 20, 21, 22, 23, 24, 26호(1954. 4-1956. 9).

32) 전경연, 「칼빈의 생애와 그 신학사상」(서울 : 신교출판사, 1959).

33) Hugh T. Kerr, 이종성 역, 「기독교강요선」(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60).

34) John Calvin, 김문제 역, 「기독교강요」(서울 : 세종문화사, 1977).

21) 「파수꾼」은 1948년 12월에 창간되어 1963년 통권 129호로 폐간한 고려신학교의 잡지이다.

22) 「파수꾼」 2호(1949), pp. 11-14 ; 3호(1949), pp. 11-15.

23) 「파수꾼」 5호(1950), pp. 33-35 ; 6호(1950), pp. 14-16 ; 17호(1952), pp. 29-31.

24) 「파수꾼」 11호(1951), pp. 14-19 ; 12호(1951), pp. 9-15.

25) 「파수꾼」 16, 17, 19, 21, 22, 23, 24, 25, 26, 31, 32, 33호(1952-1953).

26) 「파수꾼」 13호(1952), pp. 20-26.

이것은 「기독교강요」가 처음으로 한글로 완역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시기의 「기독교강요」 번역은 라틴어나 프랑스어에서 직접 번역한 것이 아니라 모두 영어나 일어에서 중역한 것이다. 그리고 1970년대에 와서 칼뱅의 설교들이 연속적으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는데, 이것은 목회자로서의 칼뱅의 모습을 조망해 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칼뱅연구가 교리적인 것을 넘어서 진전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때 일어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건은 한국에서 칼뱅연구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 1963년 12월 10일에 「한국칼빈신학연구회」(The Society of Calvin Studies in Korea)를 결성한 일이다. 당시 창립총회 회의록에는 “장로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에 칼빈의 신학이 별로 소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적 근거를 칼빈의 신학에 둔다고 하는 한국 장로교회 내의 대다수의 목사들은 칼빈주의와 칼빈신학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 몇몇 목사들이 1963년 11월 7일 하오 6시부터 9시까지 연세대학교 총장 공관에 모여 토의한 결과 그 모임을 발기인회로 하고 창립총회 소집 준비위원 3명으로 유후준, 김정준, 이종성을 선출하였다.”³⁵⁾ 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창립된 한국칼빈신학연구회는 초대회장에 한경직, 총무 겸 서기에 이종성을 선출하고, 산하에 연구부, 출판부, 서무부를 두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연구회의 회칙 2조는 “칼빈의 신학사상을 연구하여 한국교회와 사회에 보급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에는 칼뱅의 작품은 말 할 것도 없고 칼뱅의 사상에 대해서도 한국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무엇보다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칼뱅 사상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한국칼빈신학연구회는 칼뱅이 죽은 지 400년이 되던 1964년에 회장인 한경직 목사가 시무하던 영락교회에서 4일 간에 걸쳐 칼뱅 사상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매일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다. 그리고 이듬해 1965년에 영락교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묶어서 「칼빈 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을 출간하였다. 책자에 수록된 저자와 논문 제목은

35) 「칼빈 서거 400주년 기념논문집」(서울 : 한국칼빈신학연구회, 1965), p. 133.

다음과 같다. 이종성(칼빈의 생애와 그의 위치), 한경직(목회자로서의 칼빈), 김정준(성서학자로서의 칼빈), 한철하(칼빈신학에 있어서의 경건), 토랜스(T. F. Torrance, 칼빈에 있어서의 신지식과 하나님에 관한 말의 문제), 니젤(W. Niesel, 최근에 발행된 칼빈 설교집의 신학적 내용), 드루리(C. Drury, 장로교의 근원). 비록 132쪽 분량의 작은 논문집이지만, 한국의 대표적 칼뱅연구가들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칼뱅 학자들의 글까지 망라되어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책이다.

「신학지남」은 1934년에 이어서 1962년에 두 번째로 칼뱅 특집호를 발간하였다.³⁶⁾ 논문의 제목에서 보듯이 칼뱅 사상의 다양한 주제들로 관심의 폭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이르러 한국 학자들에 의해 집필된 칼뱅연구서들도 본격적으로 선을 보이기 시작한다. 1968년 출판된 이종성의 「칼빈, 생애와 사상」은 칼뱅연구의 입문서 역할을 하였으며, 1969년에는 김성환이 오랫동안 「기독신보」에 연재했던 글을 모아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이란 책을 펴내기도 하였다. 그 후 1970년대에는 이근삼의 「칼빈, 칼빈주의」, 김남식이 편찬한 「칼빈주의 연구」, 정성구의 「칼빈주의 사상과 삶」, 한신대 교수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 등이 한국에서의 칼뱅연구를 발전시켰다.³⁷⁾

1960~1970년대에는 외국에서 발행된 칼뱅에 관한 좋은 책들도 다수 번역되어 칼뱅연구에 활력을 더했다.³⁸⁾ 스트롱(R. Strong)의 「칼빈주의 5대교리」, 스

36) 「신학지남」 29권 1호(1962). 칼뱅 특집호에 게재된 논문은 박형룡 “칼빈의 현대적 의의”(권두언), 안용준 “칼빈의 생애와 사업”, 박형룡 “칼빈신학의 기본원리”, 오병세 “칼빈의 신국관”, 명신흥 “칼빈의 윤리사상”, 김희보 “목회자로서의 칼빈”, 조동진 “교회 통일과 분리에 대한 칼빈의 해석”, 한철하 “칼빈의 정치론” 등이다.

37) 이종성, 「칼빈, 생애와 사상」(예장총회교육부, 1968, 중보판 1978); 김성환,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영음사, 1969); 이근삼, 「칼빈, 칼빈주의」(고신대학교출판부, 1972); 김남식 편, 「칼빈주의 연구」(백합출판사, 1972); 정성구, 「칼빈주의 사상과 삶」(한국성서협회, 1978); 한신대 교수 11인, 「칼빈신학의 현대적 이해」(한신대출판부, 1978).

38) H. Bavinck, 손두완 역, 「칼빈과 일반은총」(Calvin and Common Grace)(성인출판사, 1960); R. Strong, 이창원 역, 「칼빈주의 5대교리」(The Five Points of Calvinism)(복된말씀사, 1961); J. D. Dengerink, 정정숙 역, 「칼빈주의와 정치」(Calvinistic

틸(D. N. Steel)과 토머스(C. Thomas)의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카이퍼(A. Kuypers)의 「칼빈주의」, 그린(J. Green)의 「칼빈주의 : 어제, 오늘, 내일」, 스피어(J. M. Spier)의 「칼빈주의 철학」 등은 칼뱅과 칼뱅주의 사상의 핵심을 밝혀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바빙크(H. Bavinck)의 「칼빈과 일반은총」, 덴저링크(J. D. Dengerink)의 「칼빈주의와 정치」, 반틸(H. Van Til)의 「칼빈주의 문화관」, 리드(W. S. Reid)의 「자연과학과 16세기 칼빈주의」, 머리(J. Murry)의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과 같은 책들은 칼뱅 사상과 정치, 문화, 과학, 사회와의 관계성에 대해 조명해 주는 책들이었다. 특히 이종성에 의해 번역된 니젤(W. Niesel)의 「칼빈의 신학」은 독일어에서 번역된 최초의 칼뱅 소개로서 한국에서 다양한 관점의 칼뱅연구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한국의 대학들에서 칼뱅을 주제로 한 석사학위 논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초의 논문은 1961년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제출된 박성모의 석사논문 “칼빈의 인간 이해와 근대 시민사회”였다. 그 후로 1960년대에 7편의 논문이 1970년대에는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1960년대에 나온 논문들이 칼뱅의 인간이해, 사상과 생애, 신 인식에 한정된 반면에 1970년대의 논문들은 교회론, 교육사상, 성령론, 정치사상, 구원론, 국가관, 목회론 등으로 주제가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차문 헌과 씨름하여 나온 연구 논문은 거의 없고 이차문헌들을 기초로 하여 나온

View on Politics(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71) ; A. Kuypers, 박영남 역, 「칼빈주의」(*Lectures on Calvinism*)(세종문화사, 1971) ; H. Van Til, 이근삼 역, 「칼빈주의 문화관」(*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영음사, 1971) ; W. S. Reid, 김용우 역, 「자연과학과 16세기 칼빈주의」(*Natural Science and Calvinism in the 16th Century*)(신학지남사, 1972) ; L. Boethner, 홍익표 역, 「칼빈주의 예정론」(*Reformed View on Predestination*)(백합출판사, 1972) ; W. Niesel, 이종성 역, 「칼빈의 신학」(*Die Theologie Calvins*)(대한기독교서회, 1973) ; D. N. Steel and C. Thomas, 김남식 역,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The Five Points of Calvinism*)(한국성서협회, 1975) ; J. Murry, 나용화 역, 「칼빈의 성경관과 주권사상」(*Calvin on Scripture and Divine Sovereignty*)(예수교문서선교회, 1976) ; J. Green, 정성구 역, 「칼빈주의 : 어제, 오늘, 내일」(*Calvinism : Yesterday, Today, Tomorrow*)(세종문화사, 1977) ; J. M. Spier, 김남식 역, 「칼빈주의 철학」(*What is Calvinistic Philosophy?*)(세종문화사, 1978).

개론적인 수준의 것들이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 1957년에 창간된 「기독교사상」에서도 칼뱅이나 칼뱅주의에 대한 논문이 간혹 실리기도 했으나 그 양은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³⁹⁾ 최근에도 「기독교사상」에서 칼뱅 500주년을 기념하여 특집으로 칼뱅과 한국교회의 관계를 조명한 바 있다.⁴⁰⁾

3) 1980년 이후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칼뱅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이때에 비로소 칼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칼뱅과 칼뱅주의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물들이 출간되었고, 한국칼뱅학회와 한국칼뱅주의연구원의 설립으로 칼뱅연구의 중심이 세워졌으며, 칼뱅의 원작들이 번역되어 본격적인 칼뱅연구의 길이 닦여지기 시작했다.

칼뱅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첫 번째 인물은 1984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경험의 개념을 분석한 논문을 제출한 이수영이었다. 그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언더우드가 설립한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새문안교회의 목사로 일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칼뱅을 처음에는 ‘칼빈’으로 표기하다가, 그 후 오랫동안 칼빈으로 불러 왔는데, 이수영이 스트라스부르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현지 음을 따라 칼뱅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첫음절에 된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최근에는 칼뱅으로 사용하는 추세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칼빈, 깔뱅, 칼뱅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칼뱅을 연구한 또 한 사람인 박건

39) 「기독교사상」에 게재된 7편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윤성범, “칼빈의 신 인식,” 5권 3호(1961. 3.) ; 선우학원, “칼빈의 생애와 정치사상,” 11권 7호(1967. 7.) ; 하해룡, “칼빈의 성서 이해,” 12권 3호(1968. 3.) ; 한철하, “정치적 칼빈주의,” 15권 3호(1971. 3.) ; 김이태, “칼빈의 개혁정신의 저력,” 19권 9호(1975. 10.) ; 이상식, “칼빈의 종교개혁과 한국장로교회,” 22권 10호(1978. 10.) ; 나학진, “보수적인 루터와 진보적인 칼빈,” 22권 12호(1978. 12.).

40) 「기독교사상」(2009. 5.)에 실린 논문들은 이오갑 “칼뱅의 성격과 한국교회”, 이정숙 “칼뱅의 신학과 목회로 한국교회를 돌아보다”, 문병호 “칼뱅의 칼뱅신학”, 박경수 “칼뱅의 사상과 한국교회의 사회적 역할”이다.

책은 칼뱅의 원작들을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칼뱅연구를 위한 기초를 다졌다. 국내에서 최초로 칼뱅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1985년 연세대학교에 칼뱅의 교회론 연구를 제출한 이양호이다. 1990년대 이후에는 미국, 독일,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칼뱅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 일일이 거명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칼뱅 연구 주제도 다양해져서 칼뱅 사상의 여러 측면들이 다루어졌다. 성령론, 섭리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국가론 등의 교리적인 주제들뿐만 아니라 칼뱅 사상에서 권징, 자유, 교회일치, 고난, 인문주의의 문제들에 집중하여 연구한 박사논문들도 나타났다. 또한 칼뱅과 아우구스티누스, 부처, 보나벤투라(Bonaventura), 이냐시오(Ignatius of Loyola), 바르트 등과 비교한 학위논문들도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칼뱅과 관련된 학술 저서들은 해야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출간되었다. 한국인들의 저서로는 루터와 칼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이형기의 「종교 개혁 신학사상」(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84), 칼뱅주의에 초점을 맞춘 정성구의 「칼빈주의 사상대계」(총신대학출판부, 1995), 이양호의 「칼빈, 생애와 사상」(한국신학연구소, 1996), 김재성의 「칼빈의 삶과 종교개혁」(이어서원, 2001), 정승훈의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대한기독교서회, 2000), 박경수의 「교회의 신학자 칼뱅」(대한기독교서회, 2009) 등이 있다. 칼뱅과 칼뱅주의에 관한 번역서는 저작보다 훨씬 많이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 한국에서의 칼뱅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번역서로는 파커(T. H. L. Parker)와 부스마(W. Bouwsma)의 칼뱅 전기를 비롯하여,⁴¹⁾ 베버(Otto Weber, 김영재 역)의 「칼빈의 교회관」(*Die Treue Gottes in der Geschichte der Kirche*, 풍만출판사, 1985), 그래함(W. Fred Graham, 김영배 역)의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 John Calvin and His Socio-Economic Impact*, 생명의말씀사, 1986), 맥닐(John T. McNeill, 양낙홍 역)의 「칼빈주의 역사와 성격」(*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0), 리드(W. Stanford Reid, 홍치모·이훈영 역)의 「칼빈이 서양에 끼친 영향」(*John Calvin : His Influence in the Western World*,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3), 월레스(Ronald S. Wallace, 박성민 역)의 「칼빈의 사회개혁사상」(*Calvin, Geneva and The Reformation*,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리스(John Leith, 이용원 역)의 「칼빈의 삶의 신학」(*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한국장로교출판사, 1995), 방델(François Wendel, 김재성 역)의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Calvin :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9), 멀러(Richard A. Muller, 이은선 역)의 「16세기 맥락에서 본 진정한 칼뱅신학」(*The Unaccommodated Calvin*, 나눔파워, 2003), 더 흐레이프(W. de Greef, 황대우·김미정 역)의 「칼빈의 생애와 저서들」(*The Writings of John Calvin*, SFC, 2006)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시기에 한국의 칼뱅연구에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한국칼빈학회가 탄생하였다. 1963년에 설립된 '한국칼빈신학연구회'가 1985년에 이르러 '한국칼빈학회'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한국칼빈학회는 신복윤, 한철하, 정성구, 이수영, 이양호, 최윤배, 안인섭을 거쳐, 현재는 필자가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한국칼빈학회는 1년에 4번(1월, 4월, 7월, 10월 셋째 주일 지난 후 월요일) 모여 논문 발표회와 토론회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 칼뱅을 전공한 학자들이 많고, 칼뱅의 사상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관심도 뜨거워 한국칼빈학회의 정기발표회 모임은 명실상부 한국에서의 칼뱅연구의 산실이 되고 있다. 한국칼빈학회는 칼뱅신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세 권의 책을 대한기독교서회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발행하였다. 「칼빈신학 해설」(1998), 「칼빈신학과 목회」(1999), 「최근의 칼빈연구」(2001)가 그것들이다. 또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장로교출판사를 통해 학회지인 「칼빈연구」를 매년 발간하여 현재 9권까지 출판되었다. 또한 칼뱅 탄생 500주년을 맞은 2009년에는 한국의 칼뱅 학자 25명이 쓴 「칼빈신학 개요」와 「칼빈, 그 후 500년」을 두란노아카데미를 통해 출판하기도 하였다. 지금도 칼뱅의 사상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정기발표회에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선보이고 있다. 정기 모임

41) T. H. L. Parker, 김지찬 역, 「존 칼빈의 생애와 업적」(*John Calvin*) (서울 : 생명의말씀사, 1986); W. Bouwsma, 이양호·박종숙 역, 「칼빈」(*John Calvin*) (서울 : 나단, 1991).

에서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1년 정도 기다려야 할 정도로 한국에서 칼뱅연구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한국칼빈학회에 소속된 회원만도 120여 명에 이른다.

한국칼빈학회는 국내에서의 칼뱅연구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칼뱅연구의 흐름에도 동참하고 있다. 대개 2년마다 개최되는 아시아칼빈학회에서도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에도 1월 17~19일까지 총신대학교에서 제11회 아시아칼빈학회가 개최되었다. 주로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의 학자들이 참석하는 아시아칼빈학회에서도 한국의 칼뱅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칼빈학회에서는 아시아칼빈학회에서 발표된 글들을 묶어서 「아시아 교회에서의 칼뱅」(*Calvin in Asian Churches*)이란 제목의 책을 펴내는 일도 도맡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수영 목사의 편집으로 3권이 출판되었는데, 1995년 5회 서울대회, 1997년 6회 타이베이대회, 1999년 7회 도쿄대회, 2002년 8회 서울대회, 2005년 9회 타이베이대회, 2007년 10회 도쿄대회의 결과물을 모두 수록하였다. 이것들은 영어로 된 책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의 칼뱅연구 성과를 유럽이나 미국으로 알리는 통로가 되고 있다. 한국칼빈학회는 세계칼빈학회와도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1998년 서울에서 제7회 세계칼빈학회를 개최한 후 한국에서는 현재 10여 명이 세계칼빈학회의 초청을 받고 있다. 특별히 이수영은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칼빈학회의 유일한 아시아 출신 상임운영위원(Presidium)으로 선출되어 아시아를 대표하여 활동하였고,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룸포테인에서 열린 세계칼빈학회에서 이수영을 대신하여 이정숙이 상임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980년대 이후 칼뱅의 원작에 대한 번역도 한국에서의 칼뱅연구에서 큰 자극제가 되고 있다. 1985년 성서교재간행사에서 칼뱅의 신구약성서 주석을 30권으로 묶어 번역한 「칼빈성경주석」을 내놓았다. 최근 들어서는 여러 출판사들을 통해 칼뱅의 설교들이 번역되고 있고, 칼뱅의 신학논문들도 속속 번역 소개되고 있다. 박건택은 「칼뱅작품선집」이라는 이름의 번역을 1998년부터 2011년 까지 연속적으로 펴냈는데, 7권으로 이루어진 이 시리즈가 최근 완간되었다.⁴²⁾

42) 박건택 편역, 「칼뱅작품선집」 I~VII(총신대학교출판부, 1998~2011). 1권에는 「세네카

또한 「기독교강요」도 1988년 김종흡, 신복윤, 이종성, 한철하에 의해 새롭게 번역되었고, 2003년에는 원광연에 의해 또다시 번역되었다. 2006~2008년에는 고영민에 의해 「기독교강요」가 다시 번역되었는데, 이 번역본은 라틴어판에서 직접 번역했다는 점에서 이전에 영어나 일어에서 번역한 것들과 차이가 난다. 「기독교강요」초판(1536)의 경우에도 1988년 양낙홍에 의해 베틀즈(F. L. Battles)의 영어판이 번역된 적이 있으나, 2009년에는 문병호에 의해 라틴어-한글 대조판으로 다시 번역되었다. 2011년에는 두란노아카데미출판사에서 기독교 고전 총서(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시리즈를 20권으로 번역 출간하였는데, 그중에 한 권인 「칼뱅 : 신학논문들」(*Calvin : Theological Treatises*)이 황정육과 박경수에 의해 번역되었다.

3. 맷는말

본 논문에서 필자는 먼저 한국에서 칼뱅연구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에서의 칼뱅연구의 미래는 밝은 상황이다. 칼뱅연구 전문 학자들이 점차 늘어 가고 있으며, 칼뱅에 관한 이차자료들뿐만 아니라 일차문헌들까지도 속속 소개되고 있고, 「한국칼빈학회」와 같은 기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칼뱅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장로교회라는 든든한 배경이 칼뱅연구를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 한국에서의 칼뱅연구가 보다 진일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

의 관용론 주석」이, 2권에는 「코프의 강연」, 「영혼 주면론 논박」, 「올리베탕 성서 서문」, 「로잔 신조와 두 편의 강론」, 「두 서신」, 「교회 설립 시안」, 「제네바 교회가 사용하는 신앙교육서」, 「[파렐의] 제네바 신앙고백서」가, 3권에는 「사돌레토에게 주는 답신」, 「성만찬 소고」, 「교회법규」, 「제네바 교리문답서」, 「성해론」, 「교회개혁의 필요성」이, 4권에는 「피기우스에 대한 자유의지 논박」이, 5권에는 「신도의 처신」, 「니고데모파에게 주는 변명」, 「재세례파 논박」, 「자유파 논박」, 「자유파 수도사에게 주는 편지」가, 6권에는 「파리 신학대학 신조와 해독제」, 「트렌트공의회 법령과 해독제」, 「교회개혁의 참된 방식」, 「점성술에 대한 경고」, 「스캔들론」이, 7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 「네 편의 설교」, 「세르베투스 논박」, 「취리히 합의와 해설」, 「제네바 콜레주 규정」, 「1561년 교회법규」, 「두 고별사」가 번역 수록되어 있다.

째, 한국에서 나온 칼뱅에 관한 모든 저작들을 집대성한 칼뱅연구 목록이 나와야 한다. 여기에는 저서와 번역서뿐만 아니라 논문과 잡지나 신문의 기사를 총망라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 나온 몇 권의 목록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엄청난 자료들을 담고 있지 못하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⁴³⁾ 이를 위해서는 미국 헨리 미터 센터(H. Henry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의 폴 필즈(Paul Fields)가 작성한 칼뱅 도서 목록 분류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칼뱅연구 목록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한국에도 헨리 미터 센터처럼 칼뱅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을 보유하고 칼뱅연구를 지원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연구소도 요청된다.⁴⁴⁾ 둘째, 칼뱅 저작들을 원문으로부터 꼼꼼하게 번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능하다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을 각주로 소개하면서 본문을 비평하는 작업까지 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일차자료의 축적은 이후 칼뱅연구의 다양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연구 동향을 위해서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칼뱅연구가 현실적 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6세기의 칼뱅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하는 것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죽은 칼뱅을 연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칼뱅이 오늘 살아 있는 인물이 되고, 생동하는 전통이 되려면 21세기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재해석되어야만 한다. 분열된 한국장로교회에 칼뱅은 어떤 의미와 빛을 던져 주는지, 보혁구도로 양분되고 남북으로 갈라진 한국사회에 칼뱅은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는지, 개혁전통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보편적인 사상들과 만나는 일에 칼뱅은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끊임

없는 질문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칼뱅이 박제된 채로 역사적 유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살아 있는 전통이 될 것인지는 한국의 칼뱅 연구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한글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에서의 칼뱅연구 역사를 추적하여 밝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 중 70% 이상이 장로교인 것을 감안할 때, 장로교 혹은 개혁주의 전통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인 칼뱅에 관한 연구는 한국 신학계에서 언제나 중요한 주제였다. 우리는 한국에서의 칼뱅연구사를 통해 한국교회사, 혹은 한국신학사상사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장로교의 토대를 놓은 칼뱅에 관한 교리적 또는 실천적 연구가 한국이라는 토양 안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칼뱅연구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자세한 칼뱅연구 목록이 만들어져야 하며, 칼뱅의 저작들이 주의 깊게 번역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칼뱅의 유산을 오늘 한국교회와 사회의 맥락 안에서 재해석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칼뱅, 칼뱅주의, 칼뱅연구, 한국교회, 장로교회

【Abstract】

This article traces how Calvin was received and studied in Korea to introduce the current situation of Calvin studies in Korea. One interesting fact is that the Presbyterian denominations are so strong that their

43) 이상규, 「한국에서의 칼빈연구 100년」(서울 : 개혁주의신행협회, 1985); 정성구 편, 「칼빈·칼빈주의 도서목록」(한국칼빈주의연구원, 1989); 김광육, 「한국 칼빈자료 100년 사 : 한국어로 발간된 자료 중심」(서울 : 성광문화사, 1994). 자료정리를 위한 제안으로는 강경림, “한국 칼빈 연구사(1)-자료정리 방법론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제11집(2006), pp. 221-238을 참조하라.

44) 1985년에 정성구가 칼뱅 및 칼뱅주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한국칼빈 주의연구원’(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은 16세기의 희귀본 자료에서부터 현대의 서책까지 4,000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종교개혁자들의 초상화, 그림, 글씨 등 수백 점과 칼뱅주의 학자들의 육성 녹음 강의 1,5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어, 칼뱅 사상의 전파에 요람 역할을 하고 있다.

members take up over 70% of the Korean Protestants. Thus, it is enough to say that Calvin, as one of the founders of the Presbyterian Church, takes a special place of affection and interest in Korea.

In this study I have observed the history of Calvin studies in Korea. Nevertheless, in order to take further steps forward Calvin studies in Korea, a few issues must be resolved. First a list of Calvin studies must be compiled for all Korean publications concerning Calvin and Calvinism. Secondly, work needs to be done for a more meticulous translation of Calvin's original works. Thirdly, struggle needs to be done to reinterpret Calvin's ideas for 21st Korean church and society. Whether Calvin would turn into a fossilized historical artifact or continue in influence Korea as a living tradition would be up to Korea's Calvin scholars.

■ Key Word ■

Calvin, Calvinism, Calvin Study, Korean Church, Presbyterian Church

1551년부터 1555년까지 깔뱅과 불링거 6 : 예정론에 대한 볼섹 논쟁 속에서 야기된 두 사람의 신학적 갈등

박상봉 박사 / 대신종회신학연구원, 교회사

들어가며

거의 최근까지도 종교개혁사에 대한 연구는 루터, 츠빙글리, 그리고 깔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한국 실정에서 지금까지도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이다. 더욱이 깔뱅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비교할 때 루터나 츠빙글리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연히, 위의 세 중심적 종교개혁자들과 동시대를 살면서 협력-교류했던 부처, 외콜람파디, 멜란히톤, 불링거 같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관심 역시도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처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신학과 교회의 개혁운동으로 공론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6세기 당시 종교개혁은 결코 거스를 수 없었던 전 유럽의 신학-교회적인 변화물결로써 각

1) 이 글은 필자가 2010년 10월 3일에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에서 발표한 졸고 “1556년 이후 하인리히 불링거의 예정론 : 불링거는 페터 M. 베어미글리와 깔뱅의 예정론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가?” 2010년 10월 3일 한국복음주의역사신학회 발표논문(미간행)과 연계 속에서 쓴 것임을 밝힌다.